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과 경합 (2011-2020)
-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서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까지 -***

이태준**

〈차 례〉

1. 들어가며
2. 연구방법론: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3. 탈식민의 주전장과 페미니즘의 도전
4.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과 새롭게 펼쳐진 담론의 지형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탈식민주의 담론의 형성을 분석한다. 2011년 일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9S1A6A3A01102841).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원.

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과 양국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피해 서사’로 고정되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였고, 정대협은 전시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운동의 변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발 내셔널리스트의 망언과 『제국의 위안부』 논쟁 등으로 내셔널리즘이 주전장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은 위축되거나 비가시화 되었다. 2015년 발표된 한일위안부합의는 내셔널리즘이 대중적 투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는 운동의 방식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두고 언론과 정치권은 피해생존자와 활동가 간의 갈등으로 소비하면서, 이용수가 제기한 논의를 사회적 과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에 연구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인식의 변화와 성찰을 주문했다. 이들은 내셔널리즘의 비판적 고찰과 페미니즘을 통해 탈식민주의 담론의 확장을 모색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탈식민주의 담론이 상호성찰을 통한 풍부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탈식민주의, 내셔널리즘, 페미니즘,
평화의 소녀상, 2015한일위안부합의

1. 들어가며

2020년 5월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이용수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 열렸다.¹⁾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렸

1) 일본군 ‘위안부’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고, 주요 언론사들이 생중계할 만큼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는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 가졌던 답답함을 토로하며, 그해 국회 진출을 목표로 정의기억연대²⁾를 떠난 당선인 윤미향을 비판했다. 더불어 향후 위안부 운동의 방향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한국 사회는 이용수가 남긴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 논의로 가져오지 못했다. 언론은 이용수의 진의(眞義)를 검토하기보다 피해생존자와 운동단체·활동가 사이의 갈등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³⁾ 한국 사회는 이를 '피해자 대 운동단체·활동가 간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제한하여 바라봤고, 나아가 '토착왜구 대 반일민족주의'라는 진영논리로 소비했다. 한쪽에서는 30년간 이뤄진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며 윤미향의 비례대표 사퇴를 요구했고, 다른 쪽에서는 이용수를 향한 인신 모욕을 쏟아냈다.⁴⁾ 22년 전의 기사까지 찾아 이용수가 일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성적 착취를 한 제도를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피해자이면서도 역사적 상처 속에서 삶을 이어온 생존자이자, 자신의 증언과 투쟁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해 온 운동가로서 활동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호칭을 다양한 맥락에 맞게 표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와 함께 '위안부'로 축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님에 대한 호칭을 '이용수'로 정리하였다.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을 시작으로 1990년 11월 37개 여성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설립했다. 정대협은 증언기록, 수요시위, 국제연대, 피해자 지원활동 등 문제해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한일위안부합의 발표 이후, 정대협은 재단법인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를 출범했다. 본 연구는 정대협과 정의연을 '운동단체'로 지칭했다.
- 3)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 『경향신문』, 2020. 5. 26; 「“정대협, 30년간 위안부 이용해 사리사욕 윤미향 죄값 치러야”」, 『서울신문』, 2020. 5. 26;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30년 팔아먹었다”」, 『중앙일보』, 2020. 5. 26.
- 4) 「“질투” “노망” “대구할매”...이용수 할머니를 겨눈 2차 가해」, 『SBS뉴스』,

본 군인과 ‘영혼결혼식’을 치렀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⁵⁾ 이는 피해생존자가 증언과 진상규명 투쟁을 통해 획득한 성원권을 부정하는 시도였다.

2020년 이용수 기자회견을 다룬 학술연구는 그 상처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기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아래 네 편의 연구는 운동의 내상을 극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이권희, 채진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반일)민족주의에 치우쳐 피해자의 경험의 주변화 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수가 운동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배경을 지적했다.⁶⁾ 이들은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쇄신할 것을 강조했다.

페미니즘 입장에서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나영은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펼쳐진 진영논리에 의해 피해생존자와 함께 이룬 운동의 성과가 폄훼된 상황에 주목했다.⁷⁾

2020. 5. 31: 「“치매 걸렸다” “대구스럽다”...이용수 할머니에 도넜은 2차 가해」, 『동아일보』, 2020. 5. 31.

- 5) 1998년 이용수는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던 대만에 방문하여 일본군 전사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즉, ‘영혼결혼식을 치렀다’는 주장은 위령제가 영혼결혼식으로 왜곡된 것이고, 나아가 이용수가 어떤 남성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의 성원권 여부가 결정되는 가부장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일본군과 영혼결혼식”...이용수 할머니 2차 가해, 도 넘었다」, 『중앙일보』, 2020. 6. 1.
- 6) 두 연구자 모두 2020년에 논문과 칼럼을 기고했기에 본 연구 4장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다만, 채진원이 주장한 공화적 애국주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합한지를 떠나 ‘연민의 공화주의’로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그의 주문이 자칫 피해생존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할 우려가 있음을 밝혀둔다. 이권희, 「일본군 위안부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제38호, 2020; 채진원, 「공화적 애국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용수의 윤미향 비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연구21』, 제13-2호, 2022.
- 7) 이나영은 이용수의 기자회견 당시 피해자중심주의가 피해자절대주의로 오독되면서 대결 구도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의 실천

야마시타 영애는 기자회견 이후 운동단체가 작성한 활동보고서에 여전히 피해생존자의 문제 제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운동 과정에서 피해생존자를 객체화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성찰을 요구했다.⁸⁾

위의 연구는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운동의 성찰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의 (postcolonialism)⁹⁾ 다층성과 복합성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다만, 이들의 논의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인식과 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지지하며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아흔을 넘긴 피해생존자가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고 향후 운동의 방향을 제안했을 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가부장주의와 제국주의 담론 아래 서발턴 여성은 말을 잃는다는 탈식민 페미니스트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논의를 떠오르게 한다. 스피박은 서발턴 여성이 지배의 문법이나 말을 가진 존재가

인 '듣기'의 작업이란 중립적 행위가 아닌 주체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역사적 반동과 탈진실의 시대, '듣는다'는 것의 의미: 2020년 5월 '이용수의 말' 이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2-1호, 2022.

8) 야마시타 영애, 「야마시타와 영애 사이에서: 틈새의 시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운동」,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9)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명칭과 개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이경원은 '포스트(post)'에 내포된 의미를 주목하는데, 이것이 이후(after)를 의미하면 "식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하는 일종의 유산"이고, 탈피·초극(beyond)을 의미하면 "식민주의 해체와 극복"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를 1945년 8월 15일 식민지 해방 이후를 의미하면서도, 여전히 식민성을 극복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경원, 「탈식민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 -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p. 24.

아닐뿐더러, 그 문법에 따라 말을 해도 담론권력에 전유되거나 봉쇄된다고 밝혔다.¹⁰⁾ 서발턴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적 인식 아래 지워진다는 점에서, 이용수의 기자회견이 충분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을 이해하려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연구의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지면과 범위의 한계로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전체를 포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통해 2000년 여성국제법정 개최, 각국 의회에서 결의안 채택, 그리고 운동의 역사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이 계획되는 등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로써 맞이한 2011년은 수요시위 1,000차를 기념하여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해로, 이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공감과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시민운동의 성장을 기록한 해였다.¹¹⁾

소녀상이 건립되기 4개월 전인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작위(不作爲)를 지적하는 판결을 내렸다.¹²⁾ 더 이상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

10) 스피박은 인도의 여성독립운동가 부바네스와리 바두리의 자살을 연구했다. 바두리는 정치적 요인을 암살하라는 조직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목숨을 끊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임신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생리주기에 맞춰 자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화행은 사회적 인식 아래 왜곡되거나 부정되었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이하 스피박), 「1부 텍스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pp. 84-136.

11)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역사』 115, 2017, pp. 82-9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조사·연구 및 출판·기념사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pp. 259-263.

12)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부작위(不作爲)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고, 정부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국가의 책임을 묻은 가운데, 위안부 운동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국제여성운동을 준비했다. 바로 전시성폭력 피해여성 및 아동들을 지원하는 '나비기금 (Butterfly Fund, 2012)'의 설립이었다.¹³⁾ 2011년 이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탈식민 운동으로 성장하며, 이를 통해 페미니즘 실천까지 추동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일 양국은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2013년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고노담화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¹⁴⁾ 한국 정부는 현재의 판결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 다루게 되었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관계의 지렛대이자, 양국의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간주되었다.¹⁵⁾ 이 과정에서 2015한일위안부합의(이하 '위안부합의')가 체결되었고, 그 배경으로 '국익 (國益)'이 주장되었다.

피해생존자와 운동단체 뿐 아니라, 시민들은 위안부합의에 반발하였다. 평화의 소녀상 이전(移轉)에 반대하며 소녀상지킴이 활동과 전국적으로 소녀상 건립 운동에 나섰다. 이 운동의 동력은 한국의 주권과 역사정의를 지키려는 시민주도의 내셔널리즘이었다.¹⁶⁾ 이

2006헌마788 판결.

13) 아나영, 앞의 책(2017), pp. 90-95.

14) 남상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제58권, 2017, pp. 429-436.

15) 2011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꺼내며 일본 정부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다 日총리가 소녀상 철거 요구하자 분위기가 짙…」, 『서울신문』, 2011. 12. 18; 「朴 "가해·피해자의 역사, 천년이 흘러도 불변"」, 『서울신문』, 2013. 3. 2.

16) 「위안부 피해자들, 외교차관에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겨레』,

는 이용기의 주장처럼, 대중이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가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탈식민 실천을 모색하는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양상이었다.¹⁷⁾ 물론 한일의 내셔널리즘은 동일하지 않으며 피해국의 내셔널리즘은 제국에 맞선 저항을 동반한다.¹⁸⁾ 다만, 내셔널리즘의 긍정적 역할이 한일 양국 간의 이분법적 대립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탈식민주의 개입이 필요하다.

종합하자면, 201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한 반면, 한일 양국은 이를 역행하여 내셔널리즘의 조건을 강화하였고, 결국 한국 사회는 내셔널리즘의 개방을 제한하는 양상을 보였다.¹⁹⁾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의 인식 아래 사회적 듣기의 실패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에 입각하여 2010년대 위안부 관련 사건의 사회적 인식과 2020년 5월 기자회견 이후 펼쳐진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지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2015. 12. 29.; 「“국가 존엄을 위해서 꼭 파기해야”, 『경향신문』, 2016. 1. 3.; 「“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연합뉴스』, 2016. 1. 5.

17) 이용기는 임정법통론이 대한민국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데올로기였고, ‘대한민국 민족주의’ 형성의 기제였음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이전의 반공·반북에 근거한 국가주의와 다르며, 분단 극복을 지향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제128권, 2019, pp. 340-343.

18) 이경원은 탈식민 역사에서 민족주의는 과도기적 필연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탈식민주의와 가해자의 탈식민주의가 동일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경원, 앞의 책, pp. 43-57.

19) 야마시타 영애는 이 시기를 “한일 간의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집회와 소녀상 건립 활동 등이 부상”되면서, 운동은 “결과적으로 틀에 박힌 ‘위안부’ 담론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평가했다. 야마시타 영애, 앞의 책, p. 93.

2. 연구방법론: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담론(discours)은 시대적 상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지식인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도, 그것이 담론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당대의 사회적 맥락과 그 사회에 살아가는 대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담론은 지배체제나 권력에 의해 구성되면서도, 동시에 이에 맞선 집단의 실천 속에서 탄생되기도 한다. 박영균은 담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 지식인이나 인물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성들의 균열과 분열 및 좌절”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강제되는 내-외적인 관계와 충돌, 내부적인 관계들이 빚어내는 모순과 갈등 등”을 다루는 작업이라 밝혔다.²⁰⁾

탈식민주의에서도 ‘담론’은 중요하게 다뤄졌다. 탈식민주의는 서구(제국) 중심의 사유체계를 비판하고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구축한다. 이때 탈식민화란, 정치적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어도 경제적·문화적으로 식민성이 남아 있거나,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 신체에 각인된 식민의 흔적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탈식민주의는 서구 중심의 담론을 비판하는 작업만이 아니라, 자기 안의 식민성을 성찰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²¹⁾

20) 박영균, 「한국 현대 지성사의 존재론적 조건과 탈식민주의 비판: 냉전-분단체제에서 탈식민화로서 지성사」,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93집, 2023, pp. 7-10.

21) 한국의 탈식민주의 연구자들 또한 이를 강조했다.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2003, pp. 33-57; 태혜숙, 「탈식민 페미니즘, 소수자 의식, 교육」,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p. 72;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70호, 2006, pp. 66-67; 박영균, 「한국 현대 지성사의 존재론적 조건과 탈식민주의 비판: 냉전-분단체제에서 탈식민화로서 지성사」,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93집, 2023, pp. 12-18.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와 마찬가지로 가부장주의라는 중심 담론의 비판과 해체를 주목했다. 가부장주의는 오랫동안 담론권력을 쥐고 사회적 규범을 생산해 온 구조적인 힘을 가졌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주의로부터 억압당한 자들의 경험을 어떻게 대변할지, 나아가 스스로 주변에 놓인 존재로서 자신의 언어가 가진 폭력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해왔다. 이들은 중심을 선망하기보다 주변이 지닌 변혁의 잠재성을 신뢰하며 차이의 정치를 수행했다.²²⁾

페미니즘이 지닌 차이의 감각은 탈식민주의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억압을 드러냈다. 페미니스트의 타파 대상은 제국주의만이 아니다. 이들은 가부장제·자본주의·제국주의 등이 서로 유착하여 작동되는 억압의 구조를 목도했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겪은 착취를 비가시화거나, 총체적 여성상을 기획하는 탈식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여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탈식민주의의 이해를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페미니즘과 탈식민주의는 때로는 서로에게 긴장을 유발하면서도, 서로의 참조로써 생산적 위기를 조성했다.²³⁾

말할 수 없는 이들, 하나의 담론으로 해석될 수 없는 목소리는 도처에 널려있다. 식민지 여성은 제국주의뿐 아니라 민족주의/가부장제 등의 복합적 억압이 작동되는 공간에 놓였으며, 여성의 발화는 인식론적 폭력의 ‘왕복 운동’을 겪었다.²⁴⁾ 즉, 스피박이 지적한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서발턴 여성의 발화와

22) 조한혜정,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주변성’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pp. 121-133; 정희진, 「페미니즘 논쟁의 재구성」,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23, pp. 87-94.

23) 태혜숙, 「스피박의 페미니즘과 탈식민의 정치」,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pp. 84-85; 고정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제4-1호, 2011, pp. 189-191; 이윤중, 「페미니즘의 확장성을 지향하며」,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제104호, 2020, pp. 45-46.

24) 스피박, 앞의 책, p. 129.

재현의 성공 여부를 묻는 것이기 보다, 듣기의 실패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²⁵⁾ 본 연구는 온전한 듣기와 재현이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더 나은 듣기를 위한 재현의 (불)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에 따라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교차하여, 일본군 '위안부' 담론의 풍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3. 탈식민의 주전장과 페미니즘의 도전

2011년 12월 14일, 그날의 수요일은 특별했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피해생존자 김복동은 '이 싸움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며, 이날도 일본대사관을 향해 힘차게 꾸짖었다. "일본 대사는 들어라!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 죽기 전에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가해국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환호와 박수가 거리를 메웠다. 더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이날 여야 정치인을 비롯하여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다.²⁶⁾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20년 전, 억울함과 분노로 섰던 이 거리는 이제 기억과 연대를 다짐하는 평화로로 거듭났고, 이를 입증하듯 평화의 소녀상²⁷⁾이 세워졌다.

25) 태혜숙, 앞의 책(2004), pp. 90-92;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pp. 133-138.

26) 「"수요시위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 『주간경향』, 2011. 12. 13; 「"평화의 길 열렸다, 사죄하라" 1000번의 외침... 귀막은 日」, 『동아일보』, 2011. 12. 15.

27) 평화의 소녀상은 '소녀상', '위안부상', '평화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취하는 입장에 따라 소녀상 명명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소녀'에 내포된 순결성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평화비'를 사용했고, 역사부정세력은 '위안부상'을 고집했다. 본 연구는 일본군

소녀상은 단발머리에 조선옷을 입고, 주먹을 쥔 채 흐트러짐 없는, 입술은 꼭 다문 채 일본대사관을 응시하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정대협은 “일본군성노예로 희생당했던 피해자들의 연행 당시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설명했다.²⁸⁾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생성하고 이에 공감하는 기억의 상징으로, 세워진 곳이 곧 일본대사관 앞이자 매주 수요시위가 개최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민족적 저항을 생산하는 물리적 표상이 되었다.²⁹⁾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소녀상 설치) 바람직하지 않다”, “일·한 외교활동에 부정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본 보수언론 또한 ‘반일 구조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³⁰⁾ ‘소녀’로 재현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은 가해국이 숨기고 싶은 식민지배와 젠더폭력을 고발한다는 점에서 철거해야 하는 반일 상징물이었다.³¹⁾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일의 내셔널리즘³²⁾이 촉발되었다. 소녀상

‘위안부’ 피해서사와 내셔널리즘에 중점을 두기에 ‘(평화의)소녀상’을 사용하였다. 오카노 야요, 「국가의 도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일합의와 ‘평화비’ 논란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제40호, 2019, pp. 104-106.

2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259-261.

29)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3호, 2013, p. 111.

30) 「위안부 평화비에 ‘품위’ 탓하는 일본」, 『경향신문』, 2011. 12. 9.

31)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일본의 식민주의/남성중심적인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검토한다」,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3호, 2017, pp. 311-313.

32)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적인 개념이다. 내셔널리즘은 민족(nation)을 최상의 가치로 하는 특정한 정치체를 추구하고, 이것이 국가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 또는 국민/국가주의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는 위안부 문제가 내셔널리즘으로 인식되면서, 양국 시민 서로를 적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며 이

이 표상하는 단발머리는 '강제'로 위안소로 끌고 간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성을, 맨발은 제국의 '성폭력'에 사과 받지 못한 억울함을, 나비는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환생을 의미했다.³³⁾ 초기 가지런했던 손은 일본 정부에서 소녀상 설치를 불편해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제해결의 강력한 염원을 상징하는 '주먹 쥔 손'으로 변경되었다.³⁴⁾ '평화비'라는 명명보다 점차 '소녀상'으로 불렸다.

한국 대중에게 소녀상은 제국주의와 남성의 성폭력으로부터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체이자,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성매매 여성으로 찬미·비하·왜곡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부정하는 데 효과적인 상징물로 인식되었다.³⁵⁾ 소녀상이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자 했던 성인 여성'을 표상했다면 위안부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³⁶⁾ 즉, 소녀상은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전형적인 위안부 피해 서사를 고정·

를 식민지 희생자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향 등을 비판했다. 또한, 내셔널리듬이 탈식민적 성찰보다 거세된 남성성을 회복하거나, 일본에 의한 과거 청산만을 주문하면서 국민국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된 점을 지적했다.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민족주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강요된 침묵」,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pp. 158-164;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pp. 28-45; 키쿠치 나츠노, 「내셔널리듬에서 식민주의로: 오키나와 A사인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pp. 140-151.

33) 김진령, 「한국을 휩쓰는 평화의 소녀상 설립 열기」, 역사와 책임, 『내일을 여는역사』 제61권, 2015, pp. 178-179.

34)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사회와역사』 115, 2017, p. 88.

35) 최은주, 「'위안부'=소녀이야기와 국민적 기억」,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07호, 2016, pp. 316-317; 최은주, 「위안부='소녀'상과 젠더 - '평화의 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6호, 2016, p. 253.

36) 위의 주장은 아래 논의에서 참조했다. 이택광, 「소녀상의 상징과 판타지 그리고 진실」, 더원미술세계, 『미술세계』 제375호, 2016, p. 67.

확산했고 이로써 그 밖의 기억은 쉽게 거론되지 못했다.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건립된 후 다른 지역에서도 소녀상이 세워졌다. 그때마다 소녀상은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서초고에 세워진 소녀상이다. 서초고에 위치한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조선의 딸’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조국의 부국강병’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함께 새겨짐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애국(愛國)과 일치시켰다. 2015년 대구에 세워진 피해생존자 이용수를 모델로 한 소녀상도 두 손에 태극기를 쥔 모습이었다.³⁷⁾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내셔널리즘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서사만을 사회적 기억으로 수용하려는 인식을 비판해왔다.³⁸⁾ 소녀상 건립 이전부터 김은경은 균질할 수 없는 여성의 경험을 민족적 피해로만 정형화하고, 이로써 정조와 순결을 강요하며, 나아가 타인의 고통을 쉽게 소비하는 일본군 ‘위안부’ 재현의 한계를 지적했다.³⁹⁾ 하지만 기억의 다층화 또는 페미니즘으로 수렴될 위와 같은 논의는 내셔널리즘의 전장(戰場)에서 발현되지 못했다.

2013년 7월 『제국의 위안부』 발간은 페미니즘의 논의에 혼란을 가져왔다. 『제국의 위안부』는 소녀상을 두고 “‘위안부’가 없는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비판했다. 소녀상에 성적 이미지가 없다는 점, 위안부는 대다수 성인(평균 연령 25세)이었다는 자료 등을 제

37) 김진령, 앞의 책, p. 180.

38) 일본군 ‘위안부’ 증언 연구는 전형적인 피해자(순수한 조선의 딸)의 설정을 비판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을 다층적이고 복합적 주체로 바라보며, 여성의 생애 전체를 마주함으로써 제국 일본의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국 한국 정부와 가부장제 사회, 가족 등의 커뮤니티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 - 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39) 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권, 2010.

시하며 소녀상이 결코 위안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사관을 향한 주먹과 눈빛은 '강제로 끌려간' 데에 대한 '분노'이며, 그런 의미에서 소녀상은 한국인들이 자신과 오버랩하고 싶어 하는 '저항하고 싸우는 소녀', '바람직한 민족의 딸'로 재현했다며 혹평했다.⁴⁰⁾

『제국의 위안부』의 소녀상 논의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피해를 강조하며 그 고통을 내셔널리즘으로 사유했던 인식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일정 정도 공유되는 지점이 있었고 유의미한 논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학문적 논쟁으로 발전하기보다 저자를 향한 대중의 규탄으로 나타났다.⁴¹⁾

물론 『제국의 위안부』는 페미니즘의 자리를 구성한 논의가 아니었다. 『제국의 위안부』는 '강제연행 주체(업자의 책임)', '동지적 관계(평화로운 위안부의 생활)' 등을 주장했는데, 이는 식민지에서 폭넓게 작동했던 강제성을 무시하며, 동원 주체에 대한 집착 속에 위안부 제도에 내포된 가부장성과 제국의 폭력성을 외면하는 주장이었다.⁴²⁾

『제국의 위안부』가 정대협을 겨냥하고, 이에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이 더해지면서, 다시금 논의는 한일 내셔널리즘의 대립에 위치되었다.⁴³⁾ 소녀상을 두고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평균 연령이 25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여성들이 겪었던 다층적인 경험에 주목하기보다 '사실'을 둘러싼 투쟁에 매몰되었다. 이는 저자가 비판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획일화하는 또

40)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이파리, 2015, pp. 204-206.

41) 전영일, 「『제국의 위안부』: 몇가지 고찰」, 민중행동, 『레프트대구』 제11호, 2016, p. 224.

42) 강성현, 「진실 없는 화해론,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한다」,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2016); 배상미, 「위안부 담론의 페미니즘적 전환의 필요성」,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제31호, 2014.

43) 배상미, 앞의 책, pp. 265-267.

다른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⁴⁴⁾

2012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무력분쟁과 젠더폭력에 반대하며 전시성폭력 운동에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김원옥, 김복동은 나비기금을 조성하여 무력분쟁의 피해여성과 아동을 지원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세계여성인권의 정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탈식민 운동의 기획이었다.⁴⁵⁾ 한편, 일본에서는 2차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아베 행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고자 했다. 일본에서 역사부정의 목소리가 강해질수록, 한국에서는 가해국 정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 내셔널리스트의 ‘위안부’ 망언은 한국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했고, 그럴수록 페미니즘의 사유는 위축되었다.⁴⁶⁾

위안부합의는 한국에서의 내셔널리즘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는 발단이 되었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12차례 국장급 회의 끝에 위안부합의를 발표했다.⁴⁷⁾ 일본군 ‘위안부’ 책임의 모호성, 배상이 아닌 거출금 형태의 재단 설립, 역사교육에 대한 담보 없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문제를 종결하겠다는 합의에 피해생존자도 운동단체도 동의할 수 없었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피해생존자와의 논의도 없었고, 소녀상 이전까지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⁴⁸⁾ 위안부합의는 운동의 의제를 ‘합의무효(재협

44) “저자가 ‘민족권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해체하기 위해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제시한 위안부상이 역사적 사실인 만큼 기존의 위안부상 또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잊고 말았다.” 전영일, 앞의 책, p. 227.

45) 이나영, 앞의 책(2017), pp. 90-92.

46) 김주희, ““무엇을 더 숨길게 있나” -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제34권, 2021, p. 62.

4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의 합의.

48)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제99호, 2018, pp. 233-234.

상)'로 집중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10년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공감했던 대학생들이 투쟁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합의타결 직후부터 대학생들은 소녀상을 지키는 농성에 돌입했다. 영하의 날씨에서도 비닐 장막 하나에 의지하며 소녀상을 지켰고, 이에 시민들은 핫팩, 이불, 따뜻한 음료 등을 지원하며 투쟁을 지지했다. 수요시위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였고, 주말에도 '합의 무효'와 '소녀상 철거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기획되었다.⁴⁹⁾ 때마침 개봉된 영화 <귀향>은 직접적인 성폭력을 재현했다는 비판⁵⁰⁾도 있었지만, 350만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거뒀다. 또한,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 소녀상을 건립하는 운동으로 분노를 이어갔다. 상당수의 소녀상이 위안부합의 이후에 세워졌다.⁵¹⁾

이를 두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한 한국 정부의 실정에 대한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⁵²⁾

49) 대학생들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을 전개했다. 대책위에는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학생겨레하나>, <민대협>, <희망나비> 등 다양한 대학생 단위가 참가하였다.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 외치는 대학생들」, 『여성신문』, 2016. 1. 9; 「영하 23도 혹한에...비닐 덮고 버티는 소녀상 지킴이들」, 『한겨레』, 2016. 1. 19; 「소녀상 지킴이들 “한·일 합의 폐기 운동”」, 『한겨레』, 2016. 1. 28.

50) 손희정은 영화 <귀향>에서 성폭력 장면이 재현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재현'에 따라붙는 대중의 감정과 욕망에 대해서도 비평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기억의 젠더정치와 대중성의 재구성 - 최근 대중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문학동네, 『문학동네』 제23-3호, 2016.

51) 「[소녀상 지도] 당신 옆에 있습니다... 전국 124곳의 나비를 클릭!」, 『KBS 뉴스』, 2019. 8. 15.

52) 문경희,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 '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18-1호, 2018, pp. 72-73.

하지만 소녀상 지킴이 활동과 전국으로 확산된 소녀상 건립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뿐 아니라, 소녀상 이전에 합의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분노였다. 당시 수요시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던 단어는 바로 ‘굴욕’과 ‘매국’이었다. ‘굴욕’은 과거사 문제에서 여전히 일본 정부에게 억눌려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원망을 나타냈고, ‘매국’은 대한민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정부에 대한 질타를 담고 있었다. 이는 ‘국민과 민족의 경계’ 안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감정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식의 ‘국민-되기’를 실천한 것이었다.⁵³⁾

전국에 세워졌던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과 동일한 모습이 대다수였지만 다른 형상도 있었다.⁵⁴⁾ 그런데도 한복을 입고 엮인 모습의 ‘소녀’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녀’라는 상징이 정확히 성매매 여성의 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한국 사회는 일본의 역사부정 세력들의 ‘일본군위안부=성매매여성(공창제)=자발성’이라는 주장에 맞서 ‘일본군위안부=소녀=강제성’이라는 피해를 주장해왔다.

강제성을 통해 피해의 본질을 한정된 위와 같은 반박은 여성에게 ‘순결한 피해자’라는 기준을 강요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을 혐오하며 성의 이중규범을 강화하는 가부장제 권력 안에 여성을 가두는 것이었다. 여기서 피해는 피해로서 인정받기보다 강제성과 저항이라는 남성권력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일본군 ‘위안부’가 한/일 내셔널리스트 간의 대결에서 반(反)/피해자로만 소환되었고, 이로 인해 다층적인 여성의 경험과 피해, 그리고 이 정쟁에서 전개된 젠더폭력까지 모두 감금되고 말았다.⁵⁵⁾

53) 허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물화 - 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시민다움의 정치학」, 구보학회, 『구보학보』 제27호, 2021, p. 378.

54) 「우리가 몰랐던 소녀상들... 몸짓 달라도 의미는 하나」, 『한국일보』, 2020. 6. 4.

55) 야마시타 영애,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의 전개와 과제」,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pp. 149-154; 최은주, 「위안부=‘소녀’상과 젠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남성을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데 제국·남성 권력이 작동했다는 데 있다. 강제성 담론에서 제기되는 여성의 나이나 동원의 이유는 성폭력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여성을 성노예로 취급하며 전쟁의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륜적 폭력이기 때문이다.⁵⁶⁾

한편, 기존의 소녀상과 다르게 표현된 동상은 서 있거나, '할머니'의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이 단순히 피해자의 이미지를 넘어 역사정의와 인권운동을 추구해 온 성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을 시작으로, 피해생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더불어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탈민족적 연대의 주체이자, 여성인권운동가로 성장했다.⁵⁷⁾ 서 있는 모습이나, 할머니 모습 등으로 다양하게 재현된 소녀상은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 피해생존자를 상징하며, 탈식민주의의 다양한 기억을 구현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소녀)와 운동가(할머니)라는 상징적 표상 외에도, 포스트 식민의 일상 속에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던 여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⁵⁸⁾

- '평화의 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66, 2016, pp. 252-256; 김주희, 앞의 책, pp. 56-64; 박정애, 「어쩌서 공창과 '위안부'를 비교하는가: 전쟁이 된 역사, 지속되는 폭력」,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pp. 189-205; 정희진, 「군 위안부 논의에서 강제성 쟁점: 여성주의와 민족주의는 대립하지 않았다」,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pp. 436-462.

56) 정희진, 「포스트 식민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학동네, 『문학동네』 제23-1호, 2016, pp. 9-10.

57) 이나영, 앞의 책(2017), pp. 90-92.

58) 신동규, 「일본군 '위안부'의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 경험: 서발턴(sublateral) 여성과 일상 속의 트라우마」,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

2016년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항쟁이 타올랐다. 위안부합의는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퇴진광장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5당 후보자 모두 위안부합의 무효 또는 재협상을 공언했다.⁵⁹⁾ 하지만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사이 30년 운동을 함께해온 활동가 윤미향은 직접 국가의 자리로 들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이용수는 30년을 싸워도 문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자 답답해하고 있었다.

201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대중의 관심 속에서 탈식민적 실천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내셔널리즘의 구도에 휩쓸리면서 세계여성인권운동을 시도했던 운동의 변화를 어렵게 했다. 또한, 페미니즘의 개입도 위축되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탈식민주의 논의는 충분히 점검되지 못한 채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맞이하게 되었다.

4.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과 새롭게 펼쳐진 담론의 지형

2020년 5월 25일, 이용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이 고민해 온 운동의 방향성을 밝혔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요구해 온 피해자로서 증언을 시작했고, ‘정신대’와 ‘위안부’를 동일시하는 인식에 반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사용된 ‘성노예’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표했다. 더하여 피해자들과 논의 없이 결정된 운동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수는 형식적인 ‘대표’ 자

『더와문화』 제15-2호, 2022.

59) 김창록, 앞의 책, p. 240.

리는 주어졌으나 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경험을 토로했다. 이는 본인과 상의 없이 국회로 진출한 활동가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용수는 운동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운동단체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⁶⁰⁾ 마지막으로, 한일학생 교류를 통한 역사교육과 평화·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관 설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30년, 일본군 '위안부' 운동단체와 함께 성장해온 이용수는 이제 운동단체 바깥에서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목소리이자, 새로운 인정 투쟁의 시작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용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문제의식이 이미 2015년 6월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도 이용수는 피해생존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는 운동방식을 비판하였고, 헛수만 채우면 되는 식의 수요시위가 불편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을 통해 한·일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를 희망했다.⁶¹⁾ 2020년 기자회견과 유사한 인터뷰 내용은 당시 한국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 2015년에는 무관심했던 언론은 2020년에는 이를 피해자와 운동단체(활동가) 간 갈등으로 과도하게 부각하여 보도했다.

한국 사회는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사태'로 명명했다. 정치권은 이용수와 활동가(운동단체)를 각각 점유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용수의 스피커를 자처했고 운동단체의 회계부정에 공세를 펼쳤다. 이들이 꾸린 '위안부할머니피해진상규명TF'는 이름에서부터 운동단체를 가해자로 이용수를 피해

60) 「[전문]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문 “그동안 일궈온 투쟁 성과 훼손하면 안된다”」, 『한겨레』, 2020. 5. 25.

61) 「이용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내 소원은 한국과 일본이 원수지 않는 것”」, 『미래한국』, 2015. 6. 24.

자로 단정했다.⁶²⁾ 하지만 이용수는 단체 회계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이용수는 운동의 방식에 문제를 지적했을 뿐 자신의 피해를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용수는 여성인권운동가로서 말했지만⁶³⁾ 미래통합당은 이용수를 활동가와 운동단체의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수의 목소리를 왜곡했다.⁶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자기정치를 실패한 피해생존자가 활동가에게 감정적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른 피해자들은 활동가의 국회 진출에 동의했다면서 이용수를 문제적 인물로 폄하했다. 심지어 이용수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헌신했던 활동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⁶⁵⁾ 이들은 이용수의 자기 정치를 타락한 욕망으로 깎아내렸고, 활동가의 국회 진출을 헌신적인 운동의 결과이자 문제 해결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에 ‘배후설’을 제기하며 피해생존자의 주체성을 무시했고, 이용수의 발언이 ‘일본 우익의 논리를 뒷받침’한다며 일본군 ‘위안부’의 성원권마저 부정했다.⁶⁶⁾

담론을 권 지배 권력의 경합 아래 이용수의 말은 사라졌다.⁶⁷⁾

62) 「미래통합당, 윤미향 의혹 향해 맹공」, 『서울경제』, 2020. 5. 25; 「주호영 “위안부 할머니 팔아먹었다는 절규에 분노”」, 『연합뉴스』, 2020. 5. 25.

63) 이용수는 2차 기자회견 당시 공식적인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그 아래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드림”을 명시했다.

64) 권김현영은 피해자중심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며 타자의 자리를 점유하는 ‘동일성의 정치’를 비판했다.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pp. 44-67.

65) 「최민희 “이용수 할머니 납득 안돼... 밥 못 사는 게 맞아”」, 『국민일보』, 2020. 5. 26; 「우상호 “할머니 화났다고 윤미향 사퇴시킬 수는 없다”」, 『한국경제』, 2020. 5. 27.

66) 「“내가 치매?”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반박... 최민희 “김어준이 하면 음모론인가”」, 『세계일보』, 2020. 5. 28; 「“진짜 위안부 피해자 맞나?”... 이용수 할머니 향한 도 넘은 2차 가해」, 『한국일보』, 2020. 5. 31.

67) 1988년 스피박은 화장(火葬)한 남편과 함께 과부를 불태우는 제도인 ‘사

이용수도, 활동가도, 운동단체도 모두 각 진영의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담보 상태에 빠졌고, 운동단체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응하느라 힘을 소진했다. 이 기회를 틈타 역사부정세력은 수요시위가 열리는 거리를 장악했고, 이용수와 활동가 모두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가들은 이용수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통해 운동의 30년을 되돌아보고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을 시도했다.⁶⁸⁾

먼저, 사건의 해석을 둘러싼 쟁점은 첫째 피해생존자의 말 듣기의 가능성, 둘째 한일 역사부정세력의 반동과 확전, 셋째 피해자와 활동가 간의 갈등이다. 다음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은 첫째 이용수의 주체화를 인정할 것, 둘째 자기 위치에서 성찰할 것, 셋째 운동단체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이 6개의 그룹으로 전문가들의 담론을 나눌 수 있다.

〈표 2〉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과 전문가들의 담론 지형

사건의 해석 해결 방안	피해자의 말 듣기	역사부정세력의 확전	피해자/활동가 갈등
이용수의 주체성 인정	(가)		(바)
자기 위치에서 성찰	(나)	(다)	
운동단체의 강화		(라)	(마)

티(Sati)'를 둘러싼 제국주의 세력과 인도의 가부장적 민족주의자 사이에 벌어지는 경합을 분석했다. 사티를 둘러싸고 제국주의 세력은 “백인종 남자가 황인종 남자에게 황인종 여자를 구해줬다”는 근대화 담론을 유포하며 폐지를 주장했고, 인도의 민족주의자들은 여성의 숭고한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스피박, 앞의 책, pp. 129-133.

- 68) 2020년 5월 말, 『경향신문』은 전문가 7명의 기고(「'위안부' 운동 다시 쓰기」)를, 『한겨레』는 10명의 전문가 기고(「위안부 운동을 말하다」)를 통해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의 사회적 성찰을 주문했다. 본 연구는 이와 함께 정대협 초기에 활동했던 정희진의 칼럼(2020. 5. 27)과 채진원의 칼럼(2020. 5. 27), 이권희의 논문(2020. 6. 13)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담론이 한계를 가질지라도 탈식민주의를 지향한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담론을 ‘친일/반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지양하기 위함이다. 또한 탈식민주의란 단일하지 않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상호 비판과 공명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각 담론의 범주는 상대적인 지향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도 밝혀둔다.

(가)그룹은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피해생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선 중대한 사건으로 바라봤다. 이 그룹은 그동안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의 다층적인 삶과 복합적인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소홀했고, 피해자라는 고정된 인식에 매몰되어서 이용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가)그룹은 이용수가 제기한 사회운동의 비판과 향후 운동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운동단체의 회계 부정 문제로 사안을 해석하는 것은 이용수의 문제 제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해국의 책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한국 사회 내부의 성찰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⁶⁹⁾

(나)그룹 또한 이용수의 말을 듣지 못한 원인을 찾는 데서 출발하되, 운동단체, 사회, 국가가 강화해온 내셔널리즘을 비판했다. 이 그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내셔널리즘으로만 활용한 채 방치해 온 국가를 질타했다. 또한 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내셔널리즘을 활용했던 단체의 운동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관련 논의가 진영논리로 소비되고, 이로써 이용수와 활동가, 운동단체 모두 혐오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일본군

69) 김정관,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허하라」, 『경향신문』, 2020. 6. 25; 변혜정, 「여성인권선언, ‘이용수들’을 만나다」, 『경향신문』, 2020. 6. 28; 정유진, 「‘정의연 영수증’과 ‘할머니 유언장’의 의미 …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경향신문』, 2020. 6. 23; 정희진, 「군 위안부 논란, 돈 문제가 아니다」, 『경향신문』, 2020. 5. 27; 한혜인, 「동지를 떠난 새 : 독립한 ‘피해자’의 목소리」, 『한겨레』, 2020. 5. 29.

‘위안부’ 인식도 비판했다.⁷⁰⁾

(가), (나) 그룹은 이용수의 목소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성찰과 한국 사회의 위안부 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서발턴 여성을 통해 복잡한 억압을 드러내고, 대항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탈식민·페미니즘의 실천으로 읽을 법하다.⁷¹⁾ 다만, 한국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담론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 위의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어 운동으로 추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그룹은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 오래 몸담아온 전문가들로서 자기 책임을 다그쳤다. 이 그룹은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확인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그간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를 반추했다. 이 그룹은 다양한 분과 학문을 통해 축적된 일본군 ‘위안부’ 연구 성과가 사회에 폭넓게 전달되지 못한다 아쉬움을 표했다. (다) 그룹은 향후 연구와 교육, 운동이 토론을 통해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페미니즘을 통한 역사쓰기의 경험을 언급했다.⁷²⁾ (다) 그룹은 계속되는 역사부정 세력의 여성혐오에 대응하며, 페미니즘의 사유를 통한 일본군 ‘위안부’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⁷³⁾

(라) 그룹은 역사부정세력의 반동과 확전에 주목했다. 이들은 피

70) 김영희, 「‘30년 위안부 운동’ 마치 끝난 듯 평가 말자」, 『한겨레』, 2020. 6. 4; 남기정, 「위안부 ‘30년’ 무너질 판 ...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한겨레』, 2020. 6. 4; 후지이 다케시, 「뉴스 이제 그만 봅시다」, 『한겨레』, 2020. 6. 2.

71) 태혜숙, 「서발턴/여성과 포스트식민적 재현의 문제」,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p. 131.

72) 강정숙, 「‘위안부’ 연구가 짊어진 두 과제 ... 왜곡 바로잡기와 외연 확대」, 『경향신문』, 2020. 7. 1; 박정애, 「‘말하기의 어려움’ 덜 수 있는 연구 향해 ... 함께 가자」, 『경향신문』, 2020. 6. 25.

73) 강정숙, 「램지어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21-1호, 2021; 박정애, 「어째서 공창과 ‘위안부’를 비교하는가: 정쟁이 된 역사, 지속되는 폭력」,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해자와 활동가(운동단체) 간의 갈등을 틈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대한 부정과 혐오를 퍼트린 역사부정세력의 준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더하여 학전의 근본 원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일 양국 정부의 방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역사적 반동에 맞서 운동단체의 쇄신과 강화를 요구했다.⁷⁴⁾

(마)그룹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단체를 악마화하는 논의를 비판했다. 이들은 위안부 운동의 오랜 활동가와 연구자로서 운동단체가 이룬 페미니즘을 통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며 ‘운동단체=반일 내셔널리즘’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피해자중심주의를 절대화하는 듣기에 경계하며, 일부는 이용수의 기자회견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운동단체의 통합이 앞으로의 과제이자, 운동단체의 강화로 이어지길 바랐다.⁷⁵⁾

(라), (마)그룹은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운동단체의 강화를 주문했다. 30년동안 피해생존자와 함께해온 운동의 성과를 복기하는 작업은 국가의 부작위와 역사적 반동에 맞선다는 점에서 탈식민주의의 실천이다. 다만, 역사부정세력의 반동은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전에도 존재했다. 역사부정세력의 반동에 맞서 운동단체의 강화에 집중할 시, 이용수의 목소리에 내포된 사건성과 운동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서발턴 주체에 대한 이해

74) 강성현, 「30년 운동 폄훼하는 보수언론 부정·혐오에 맞설 힘을 키울 때다」, 『한겨레』, 2020. 6. 8; 김창록, 「일본에 가해자의 책임 다시 묻고 ‘여성인권과 평화’ 허브를 이 땅에」, 『한겨레』, 2020. 6. 10; 박노자, 「정의언이 보수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이유」, 『한겨레』, 2020. 6. 3; 박래군,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30년 운동 시민과 함께 할 방향을 고민하자」, 『한겨레』, 2020. 6. 1.

75) 김부자,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 본 정대협·정의연 운동」, 『경향신문』, 2020. 6. 30; 양미강, 「모두가 하나됐던 ‘2000년 법정’처럼 2020년 시대적 요구에 머리 맞대자」, 『한겨레』, 2020. 6. 9; 양현아, 「피해자를 대변한다는 것 : 그 많던 ‘할머니’는 다 어디로 가셨을까」, 『한겨레』, 2020. 5. 27.

와 아래로부터의 탈식민 역사쓰기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⁷⁶⁾

(바)그룹은 운동단체의 (반일)내셔널리즘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가해국에만 물었던 운동방식이 피해생존자의 다층적 경험을 듣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안티-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주문했다.⁷⁷⁾ 그러나 이용수의 발언을 근거로 운동단체를 비판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이 그룹은 이용수를 '반일민족주의'에 대항하는 존재로 (재)타자화 했다.

또한, (바)그룹의 주장대로 정대협을 '반일민족주의로 성역화 된 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대협은 아시아 여성의 연대를 모색하고,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탈식민주의 실천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더하여 운동이 대중과 함께 성장했다는 점에서, (바)그룹의 비판은 운동단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어야 했다. (바)그룹이 주장하는 내셔널리즘의 폭력성은 분명 탈식민의 극복 과제이다. 하지만 민족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민족적 상처를 껴안고 스스로 분열하며 주체적 힘을 기르는 탈식민의 시도마저 배제할 수 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안티(anti, 反)'라는 균질적 언어 아래 탈식민이 기획하는 차이의 정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自問)할 필요가 있다.⁷⁸⁾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전문가들의 기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내셔널리즘의 대립 구도를 넘어 다양한 탈식민주의 담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페미니즘은 탈식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생존자의 목소리와 페

76) 태혜숙, 앞의 책(2004), p. 131.

77) 이권희, 「일본군 위안부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사상학회, 『일본사상』 제38호, 2020; 채진원, 「'운동'에 경종을 울리는 이용수의 절규」, 『프레스인』, 2020. 6. 1.

78) 박영균, 앞의 책, pp. 12-18.

미니스트 실천을 재사유하며 일본군 ‘위안부’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러한 논의는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비판을 통해 공명을 추구하는 탈식민주의 담론의 가치를 재확인하며 사회적 성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실천 과제로 전환한 점도 유의미하다. 나아가, 자신을 억압하는 구조와 다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피해생존자의 투쟁과 이에 응답하고자 했던 탈식민·페미니스트의 실천이 탈식민주의 담론의 확장을 가능케 했음을 일러둔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회적 인식과 담론의 경합을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을 통해 검토하고, 2020년 이용수의 기자회견 이후 펼쳐진 담론의 지형을 분석했다. 2011년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부인과 한일 양국 내셔널리즘의 강화 속에 ‘강제로 끌려간 소녀’라는 피해 서사를 강조하게 되었다.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소녀상에 내포된 정형화된 피해 서사와 강화되는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며, 위안부의 다층적 기억을 조명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도 전시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세계여성인권운동으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하지만 일본발 내셔널리스트의 망언과, 『제국의 위안부』 논쟁 등으로 학문적 논의는 위축되었고, 그럴수록 페미니즘의 논의와 실천도 비가시화 되었다.

2015년 위안부합의 발표는 내셔널리즘이 대중의 투쟁으로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공감한 대중들은 합

의 무효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활동, 전국에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다. 이들은 굴욕적인 합의를 맺은 한국 정부에 분노하며 내셔널리즘에 기반을 둔 실천을 이어갔다. 이들의 투쟁에서 확인된 일본군 '위안부' 인식은 일관되게 '소녀'로 재현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일 내셔널리스트의 갈등에서 '위안부=성매매여성'이라는 왜곡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순결한 피해자라는 기준을 강요하고 성의 이중규범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20년 이용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일학생 교류와 역사교육을 향후 운동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피해생존자가 운동단체 바깥에서 자기운동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정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은 이용수의 기자회견을 피해자와 활동가 간의 갈등으로 부각했다. 또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영논리가 전개되면서 이용수의 기자회견은 논의의 장을 잃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문가들은 피해생존자의 말 듣기로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주체성 확인, 내셔널리즘을 고집해온 한국 사회의 인식 비판, 탈식민·페미니즘을 접목한 연구·교육 추진, 역사부정세력의 반동에 맞선 운동의 역량 강화, 운동단체의 페미니즘 실천 재조명, 내셔널리즘에 얽매인 운동방식의 쇄신 등을 주문했다. 탈식민주의 담론의 차이를 드러낸 이러한 논의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며, 페미니즘의 접목을 통해 담론의 확장을 가져왔다.

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들은 언제나 사회적 인식의 바깥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사회는 이에 응답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음을 짚고자 한다.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연구는 피해생존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뒤늦게나마 그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통해 지난날보다 나은 실천을 모색해 왔다. 아물지 못한 상처를 다시 들추는 작업을 수행한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성공한 운동으로 남기보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돌아보며 변화와 성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운동이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다.

폭풍처럼 몰아쳤던 비난과 혐오가 다소 가라앉은 오늘, 각자가 겪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담론은 각기 다른 논의의 지형을 펼치고 있다. 이중 어느 하나의 관점이 우위를 점할 수 없다. 탈식민주의 담론이 차이를 생산하며 뺏어 나갔다는 것은, 탈식민의 방안이 하나로 고정될 수 없으며, 상대 담론은 내 안의 한계를 비추는 비판의 거울이자 마주함으로써 깊은 사유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임을 의미한다. 결국, 자신과 다른 담론을 함께 사유할 때 비로소 탈식민의 극복에 도달할 수 있다면, 식민의 상처를 이어받은 분열된 주체인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나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적 참조를 생산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부자,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서 본 정대협·정의연 운동」, 『경향신문』, 2020. 6. 30.
- 강성현, 「30년 운동 폄훼하는 보수언론 부정·혐오에 맞설 힘을 키울 때다」, 『한겨레』, 2020. 6. 8.
- 강정숙, 「‘위안부’ 연구가 짊어진 두 과제 … 왜곡 바로잡기와 외연 확대」, 『경향신문』, 2020. 7. 1.
- 김영희, 「‘30년 위안부 운동’ 마치 끝난 듯 평가 말자」, 『한겨레』, 2020. 6. 4.
- 김정란, 「‘위안부’ 생존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허하라」, 『경향신문』, 2020. 6. 25.
- 김창록, 「일본에 가해자의 책임 다시 묻고 ‘여성인권과 평화’ 허브를 이 땅에」, 『한겨레』, 2020. 6. 10.
- 남기정, 「위안부 ‘30년’ 무너질 판 …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 『한겨레』, 2020. 6. 4.

- 박노자, 「정의연이 보수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 이유」, 『한겨레』, 2020. 6. 3.
- 박래군,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30년 운동 시민과 함께 할 방향을 고민하자」, 『한겨레』, 2020. 6. 1.
- 박정애, 「말하기의 어려움' 덜 수 있는 연구 향해 ... 함께 가자」, 『경향신문』, 2020. 6. 25.
- 변혜정, 「여성인권선언, '이용수들'을 만나다」, 『경향신문』, 2020. 6. 28.
- 양미강, 「모두가 하나였던 '2000년 법정'처럼 2020년 시대적 요구에 머리 맞대자」, 『한겨레』, 2020. 6. 9.
- 양현아, 「피해자를 대변한다는 것 : 그 많던 '할머니'는 다 어디로 가셨을까」, 『한겨레』, 2020. 5. 27.
- 정유진, 「정의연 영수증'과 '할머니 유언장'의 의미 ...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경향신문』, 2020. 6. 23.
- 정희진, 「군 위안부 논라, 돈 문제가 아니다」, 『경향신문』, 2020. 5. 27.
- 채진원, 「'운동'에 경종을 울리는 이용수의 절규」, 『프레시안』, 2020. 6. 1.
- 한혜인, 「둥지를 떠난 새 : 독립한 '피해자'의 목소리」, 『한겨레』, 2020. 5. 29.
- 후지이 다케시, 「뉴스 이제 그만 봄시다」, 『한겨레』, 2020. 6. 2.

2. 논문

- 강정숙, 「램지어교수 논문을 매개로 일본정부의 책임 다시 보기」, 한국여성연구, 『페미니즘연구』 제21-1호, 2021, pp. 215-231.
- 고진갑희, 「탈식민주의의 저항전략과 페미니즘」,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제4-1호, 2011, pp. 167-203.
- 김부자, 「한국의 <평화의소녀상>과 탈진실(post-truth)의 정치학: 일본의 식민주의/남성중심적인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검토한다」,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3-3호, 2017, pp. 279-322.
- 김은경,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의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5권, 2010, pp. 177-203.
- 김주희, 「“무엇을 더 숨길게 있나” - '위안부' 망언의 본질주의를 넘어 -」,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제34권, 2021, pp. 39-84.
- 김진령, 「한국을 휩쓰는 평화의 소녀상 설립 열기」, 역사와 책임, 『내일을여는역사』 제61권, 2015, pp. 174-191.
- 김창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제99호, 2018, pp. 230-245.

- 남상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인식과 정책 변화」,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제58권, 2017, pp. 405-443.
- 문경희, 「호주 한인들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 ‘위안부’ 운동 - ‘코스모폴리탄’ 기억형성과 한인의 초국적 민족주의 발현」,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연구』 제18-1호, 2018, pp. 47-92.
- 박영균, 「한국 현대 지성사의 존재론적 조건과 탈식민주의 비판: 냉전 - 분단 체제에서 탈식민화로서 지성사」,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제93집, 2023, pp. 5-39.
- 배상미, 「위안부 담론의 페미니즘적 전환의 필요성」,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제31호, 2014, pp. 264-280.
- 손희정, 「기억의 젠더정치와 대중성의 재구성 - 최근 대중 ‘위안부’ 서사를 중심으로」, 문학동네, 『문학동네』 제23-3호, 2016, pp. 549-570.
- 신동규, 「일본군 ‘위안부’의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 경험: 서발턴(subltern) 여성과 일상 속의 트라우마」,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문화』 제15-2호, 2022, pp. 7-33.
- 오카노 야요, 「국가의 도덕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한일합의와 ‘평화비’ 논란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이론』 제40호, 2019, pp. 103-132.
- 이권희, 「일본군 위안부의 ‘주체화’에 관한 고찰」, 한국일본사상사학회, 『일본사상』 제38호, 2020, pp. 161-185.
- 이나영, 「초/국적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정치학의 확장」, 비판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제70호, 2006, pp. 63-88.
- 이나영,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다시 보기 - 문화적 트라우마 극복과 공감된 청중의 확산」,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제115권, 2017, pp. 65-103.
- 이나영, 「역사적 반동과 탈진실의 시대, ‘듣는다’는 것의 의미: 2020년 5월 ‘이용수의 말’ 이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제22-1호, 2022, pp. 155-194.
-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사, 『역사비평』 제128권, 2019, pp. 326-352.
- 이윤종, 「페미니즘의 확장성을 지향하며」, 문화과학사, 『문화과학』 제104호, 2020, pp. 23-48.
- 이택광, 「소녀상의 상징과 판타지 그리고 진실」, 더원미술세계, 『미술세계』 제375호, 2016, pp. 66-69.
- 전영일, 「『제국의 위안부』: 몇 가지 고찰」, 민중행동, 『레프트대구』 제11호,

2016, pp. 223-231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3호, 2013, pp. 101-116.

정희진, 「포스트 식민주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학동네, 『문학동네』 제23-1호, 2016, pp. 1-10.

최은주, 「'위안부'=소녀이야기와 국민적 기억」, 한국일본학회, 『일본학보』 제107호, 2016, pp. 305-321

최은주, 「위안부='소녀'상과 젠더- '평화의 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제66호, 2016, pp. 243-261.

채진원, 「공화적 애국주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이용수의 윤미향 비판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연구21』, 제13-2호, 2022, pp. 2941-2956.

허윤,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기억의 물화-일본군 '위안부' 표상과 시민다움의 정치학」, 구보학회, 『구보학보』 제27호, 2021, pp. 375-408.

3. 단행본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1부 텍스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그린비, 2013.

강성현, 「진실 없는 화해론, 『제국의위안부』를 비판한다」,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김애령, 「다른 목소리 듣기」,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박유하, 『제국의위안부』, 뿌리와이파이, 2015.

박정애, 「어째서 공창과 '위안부'를 비교하는가: 정쟁이 된 역사, 지속되는 폭력」,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야마시타 영애,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의 전개와 과제」,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 2012.

야마시타 영애, 「야마시타와 영애 사이에서: 틈새의 시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운동」,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민족주의, 섹슈얼리티, 그리고 강요된 침묵」,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근대를 다시 읽는다 2』, 역사비평사, 2006.
-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탈식민주의-이론과 쟁점』, 문학과 지성사, 2003.
- 정희진, 「페미니즘 논쟁의 재구성」,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2023.
- 정희진, 「군 위안부 논의에서 강제성 쟁점: 여성주의와 민족주의는 대립하지 않았다」,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휴머니스트, 2024.
- 조한혜정, 「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주변성’이 지닌 힘과 ‘다름’의 정치학」,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1998.
-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 구조」, 『위험한 여성: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 키쿠치 나츠노, 「내셔널리즘에서 식민주의로: 오키나와 A사인 제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 태혜숙, 「서발턴/여성과 포스트식민적 재현의 문제」,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 태혜숙, 「스피박의 페미니즘과 탈식민의 정치」,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 태혜숙, 「탈식민 페미니즘, 소수자 의식, 교육」,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004.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조사·연구 및 출판·기념사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2014.

4. 기타자료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판결.

(투고일: 2024. 11. 18 심사완료일: 2024. 12. 17 게재확정일: 2024. 12. 23)

이태준
소 속: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자우편: weonetruth@gmail.com

[Abstract]

The Formation and Contestation of Postcolonial
Discourses Surrounding the 'Comfort Women' Issue
(2011-2020)

Lee, Tae-Jun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of social perceptions and postcolonial discourses on the 'comfort women' issue from 2011 to 2020. The Statue of Peace was fixed as a 'victim narrative' as the Japanese government's amid historical denial by Japan and intensifying nationalism in both Korea and Japan.

Feminist scholars and the Korean Council sought to shift the focus to wartime sexual violence, but rising nationalism and controversies, including Empire's Comfort Women, hindered broader discussions. The 2015 bilateral agreement further fueled nationalism as a site of public contention.

In May 2020, survivor Lee Yong-soo's critique of the movement's methods was overshadowed by media framing it as internal conflict. Scholars have since called for reflection and a reexamination of the issue through feminism and postcolonial perspec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mutual reflection and nuanced understanding to deepen postcolonial discourse on the 'comfort women' issue.

Key words: Comfort Women, postcolonial, nationalism, feminism,
Statue of Peace, Lee Yong-soo